

서한, 대구 엑스코선 1공구 설계평가 상위 선정

HS화성·태왕이앤씨와 경쟁...건설공사 입찰 3과전 철도 상판 슬림화·히말라야시다 보존공법 등 평가

대구를 대표하는 3대 건설사의 '자존심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1공구 건설공사 설계평가에서 서한건설이 우위를 차지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회 과위원회가 엑스코선 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평가를 벌인 결과, 서한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에 한 발 다가

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평가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각 컨소시엄에 개별적으로 통보됐다.

추정금액 1천340억 원 규모의 탄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 중인 엑스코선 1공구 건설공사 입찰에는 서한건설과 HS화성건설, 그리고 태왕이앤씨가 참여한 진흥기업건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엑스코선 1공구는 수성구민운동장역

을 출발해 범어네거리와 벤처밸리거리를 지나 동대구역네거리까지 총연장 3.34km 구간이다. 공사구간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주요 네거리를 관통하는 만큼, 철도상판의 슬림화 기술과 히말라야시다 가로수 경관 훼손 최소화 여부가 설계평가의 핵심요소였다.

이날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14명은 지난 7일 열린 입찰업체 공동설명회에 이어, 3개 컨소시엄의 보충 설명을 청취한 뒤 설계와 적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3개 컨소시엄은 저마다 히말라야시다 보존 공법과 인근 시설물과의 연계성, 지명에 착안한 정거장 디자인을 담은 설계안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대구는 이날 비공개 설계평가에서 산출한 설계점수 70%와 가격점수 30%를 합산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지만, 사실상 이날 설계 평가 결과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날 설계평가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3일을 포함해 대구시의 해명기간을 포함하면 설계점수 공개까지 모두 8일이 소요된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대구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설계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

경제지표

▼ 코스피	2,615.81 (16.26)
▼ 코스닥	711.26 (8.96)
▲ 다우산업	42,583.32 (597.97)
▲ 나스닥	18,188.59 (404.54)
▼ 상해종합	3,369.98 (0.05)
▲ 니케이	37,780.54 (172.05)
▼ 선물	352.35 (1.30)
▲ 환율(1\$)	1,469.00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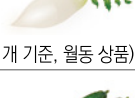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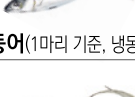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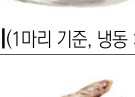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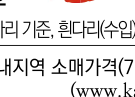
(18:00 현재)

I우리동네 장바구니 물가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대구경북지역본부

(2025. 3. 24 기준)

 감자 (100g 기준, 수미(시설) 상품)	 오늘 : 699원 전주 : 566원
 고구마(1kg 기준, 밤 상품)	 오늘 : 5,405원 전주 : 4,990원
 사과(10개 기준, 후지 상품)	 오늘 : 30,150원 전주 : 24,900원
 배(10개 기준, 신고 상품)	오늘 : 43,900원 전주 : 43,900원
 감귤(10개 기준, 노지 M과)	오늘 : 14,500원 전주 : 14,500원
 수박(1개 기준, 중품)	 오늘 : 27,900원 전주 : 25,900원
 배추(1포기 기준, 월동 상품)	 오늘 : 5,490원 전주 : 5,190원
 애호박(1개 기준, 상품)	 오늘 : 2,140원 전주 : 2,490원
 무(1개 기준, 월동 상품)	 오늘 : 3,290원 전주 : 3,140원
 오이(10개 기준, 기시 상품)	 오늘 : 21,100원 전주 : 21,600원
 상추(100g 기준, 적 상품)	오늘 : 1,185원 전주 : 1,185원
 풋고추(100g 기준, 상품)	 오늘 : 2,860원 전주 : 2,990원
 대파(1kg 기준, 상품)	 오늘 : 5,195원 전주 : 5,005원
 양파(1kg 기준, 상품)	 오늘 : 3,900원 전주 : 3,755원
 고등어(1마리 기준, 냉동 : 대)	오늘 : 5,490원 전주 : 5,490원
 갈치(1마리 기준, 냉동 : 중)	 오늘 : 4,995원 전주 : 5,545원
 건멸치(100g 기준, 중멸)	 오늘 : 2,715원 전주 : 3,145원
 새우(10마리 기준, 찬다리(수입) 중품)	 오늘 : 4,475원 전주 : 4,225원

국내지역 소매가격(71개 품목)은 kamis 참조
(www.kamis.co.kr)



대경선 개통으로 롯데백화점 대구점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백화점 9층에 위치한 '애슐리퀸즈'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청년·가족 북적...대경선 타고 롯데백 매출 훈풍

〈대구〉

100일간 신규 고객 약 25%↑ 구미·경산 등 원거리서 발길 아파트 입주민 증가 영향도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으로 롯데백화점 대구점을 찾는 고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따르면 대경선이 개통한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00일간 백화점의 신규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다. 특히 젊은 고객층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대경선 개통에 따른 원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조사한 대경선 개통 이후 100일간 고객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구미시, 경산시, 대구 수성구 거주 고객이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세부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구미시가 4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경산시 43%, 대구 수성구 40%, 대구 동구 36%, 대구 중구 35%의 순으로 신규 고객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구매력이 높은 40대 고객이 32%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30대(31%)와 60대(28%)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20대 방문고객 수가 전년 대비 15% 이상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대경선 개통으로 구미와 경산 등 경북지역 청년들이 대구 도심문화를 즐기기에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상품군은 식음료(F&B)매장, SPA(유니클로, 무인양품), 집객형 문화시설(메타시티) 순이었다.

이는 대경선 이용고객 증가와 더불어 백화점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신규 입주가 지난해 약 8천 세대 늘어나면서 가족 단위 고객이 많아진 결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앞으로 젊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가족 단위 고객들이 오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집객형 콘텐츠를 늘려갈 계획이다.

고객 접근성이 높은 1층과 2층을 리뉴얼해 젊은 고객이 선호하는 SPA와 드레스터어를 비롯해 각종 편집숍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대구지역 유명 베이커리 카페 '두넛 디스터브'를 올 상반기 중 선보인다.

엄선웅 롯데백화점 대구점장은 "대경선 개통으로 올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장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대구시-경북도,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 선정 광역 협력

대구시가 경북도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참여한다.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인프라와 인력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의 정보보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

업이다. 2023년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첫 번째 클러스터로 선정됐으며, 올해 또 하나의 지역 클러스터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는 이달 말에 진행된다.

선정된 지역에는 오는 2029년까지 총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사업 선정을 위해 광역권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대구·경북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대구·경북지역 대표 기업의

CISO를 비롯해 중앙전파관리소, 대구시·경북도 관계자, 학계, 관련기관 등으로 구성돼 지역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류동현 대구시 ABB산업과장은 "대구와 경북에서 정보보호기술을 효과적으로 융합할 전략을 마련해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